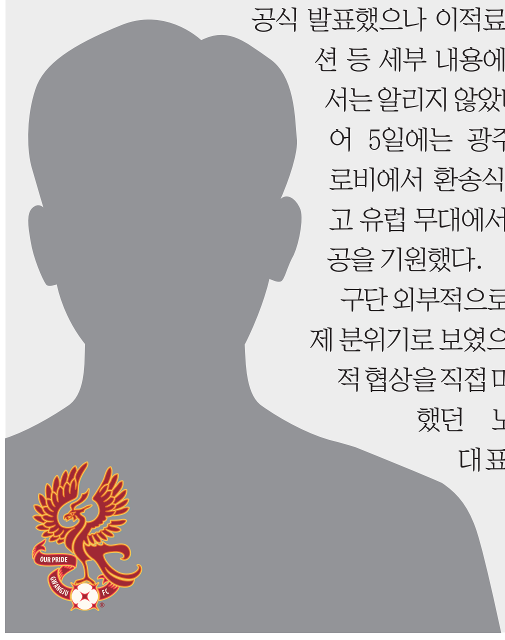
'엄지성 이적' 뒷말… "보고 누락·비상식적 업무"

광주FC → 스완지 시티

英 스완지 이적협상 보고체계 무시
'감독 패싱' 특정 에이전트에 협상권
구단 뒤늦게 파악 이적료 줄어들어
이정효 "광주시 자산 헐값에 판 것"



광주FC 엄지성이 지난 5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EFL 챔피언십 스완지 시티 AFC 이적과 관련 환송식에 참석한 뒤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가 '프랜차이즈 스타' 엄지성을 EFL 챔피언십(잉글랜드 2부리그) 스완지 시티 AFC로 떠나보낸 가운데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적 과정에서 구단 직원의 보고 체계 무시와 미숙한 행정으로 더 많은 이적료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구단은 지난 3일 엄지성의 스완지 이적을 공식 발표했으나 이적료와 옵션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이어 5일에는 광주시청 로비에서 환송식을 열고 유럽 무대에서의 성공을 기원했다.

구단 외부적으로는 축제 분위기로 보였으나 이적 협상을 직접 마무리했던 노동일 대표이사가 격노하는 등 정작 내부에서는 초상집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합의 내용을 알리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노동일 대표이사를 찾아가 엄지성을 보내야 한다고 채근했다. 당시 책정된 이적료는 70만달러에 불과했다"며 "심지어 특정 에이전트에게 이적 추진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다. 이정효 감독 등 코칭스태프와 선수운영팀장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원인으로 광주FC 사무처 직원의 보고 누락과 미숙한 이적 협상이 꼽힌다. 이정효 감독은 올 시즌 해당 부서를 두고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특정 파트의 문제로 구단 전체가 욕을 먹는다'고 비판해왔다.

사무처 직원 A씨는 스완지로부터 70만달러(약 9억7000만원) 규모의 최초 이적료 제안을 받은 뒤 선수운영팀장을 건너뛴 채 간부 B씨에게 보고했다. 이후 함께 노동일 대표이사에게 이를 수락할 것을 설득했고, 특정 에이전트에게 독점 협상권을 제공하기 위한 위임장도 작성했다.

이 사실을 이정효 감독이 인지하면서 광주 구단은 뒤늦게 해당 에이전트를 배제하고 노동일 대표와 선수운영팀장이 직접 협상에 나서 이적료 120만달러(약 16억6000만원)에 최종 합의를 이뤘다. 내부적으로 책정했던 150만달러(약 20억7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광주 구단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업무처리였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이동과 인사위원회 회부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구단 관계자는 전남일보와 통화에서 "특정 에이전트에 독점 협상권을 준 것은 맞다"면서도 "구단이 선수를 시장에 내놓는 경우 복수의 에이전트에 위임장을 써줬으나, 선수 에이전트를 통해 구단의 제안이 오는 경우 검토 후 독점 협상권을 줘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문제를 일으킨 직원의 경우 선수운영팀장의 의사를 듣고 현재 보직을 유지할지 타 부서로 이동할지 결정할 계획이다"며 "인사위원회 회부 등 징계 절차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이정효 감독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엄지성의 이적 협상 과정 중 '할 이야기가 많다. 절차가 마무리되고 따로 문의해 주시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겠다'고 예고했던 대로였다.

이 감독은 전남일보와 만나 "우리 구단이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엄지성은 광주시의 자산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선수를 이렇게 보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A씨가 엄지성에 대한 최초 제안을 받은 뒤 보고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면서 엄지성의 이적료가 헐값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감독은 "직원 두 명이 교대로 대표이사실을 찾아가 설득한 것은 문제가 크다. 만약 노동일 대표이사님이 제게 묻지 않았으면 코칭스태프와 선수운영팀장도 모르는 사이에 이적이 결정됐을 것"이라며 "여러 구단이나 에이전트가 경쟁했으면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었는데 독점 협상권을 준 것은 비상식적이다"고 지적했다.

한규빈 기자

'전반기 20홈런-20도루' 김도영, 6월 월간 MVP

3~4월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KIA타이거즈 역사상 첫 전반기 20홈런-20도루 주인공이 된 '야구 천재' 김도영(사진)이 6월 월간 MVP에 등극했다. 김도영은 지난 3~4월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월간 MVP를 수상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김도영이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6월 월간 MVP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김도영은 기자단 투표 30표 중 6표, 팬 투표 50만7615표 중 24만5598표로 총점 34.54를 기록하며 키움히어로즈 김혜성(총점 27.13)을 제쳤다.

앞서 김도영은 지난 3~4월 월간 MVP를 수상한 바 있다. KBO리그 최초로 월간 10홈런-10도루를 달성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며 기자단 투표 30표 중 23표, 팬 투표 44만8880표 중 23만6767표로 총점 64.71을 기록하며 SSG랜더스 최정(총점 15.16)을 압도했다.

김도영은 올 시즌 내내 맹활약을 이어갔다. 지난달 23일에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더블헤더 1차전 4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류현진을 상대로 솔로포를 쏘아 올리며 20홈런-20도루를 완성했다.

한규빈 기자

광주시체육회, 10개 종목 3억6850만원 국비 확보

광주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2024년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에 선정돼 3억685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를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한체육회 사업이다. 전국 191개 단체 546개 팀이 공모에 참여해 53개 단체 292개 팀이 선정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계획, 인권친화 문화조성 노력, 선수단 실적, 사회공헌 노력 4개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체육회에서는 근대5종, 스쿼시, 레슬링, 유도(광주교통공사) 등 11개 팀이 선정됐으며, 지원받은 금액은 팀 운영에 필요한 용품 구입과 훈련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6월 발표된 '2024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어 총 2억7000만원(연간 9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로써 광주시체육회는 올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한 창단 및 운영 사업 공모에 모두 선정돼 총 6억385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최동환 기자

'아시아쿼터 1순위' 장 위 "한국 배구 적응 문제없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미들 블로커 장 위가 지난 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2일 입국… 4일 선수단 합류
'최장신' 197㎝, 높이 강점 확실
중국 무대서 12년 활약한 베테랑

2024~2025 V-리그 아시아쿼터 최대어로 꼽혔던 미들 블로커 장 위(28·Zhang Yu)가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에 합류해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 강점인 높이를 바탕으로 많은 득점을 올려 봄배구 진출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장 위는 지난 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인터뷰를 갖고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적응이 어려울까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도 "막상 와보니 중국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사는 방식과 먹는 것 모두 비슷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 위는 지난 2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4일부터 선수단 훈련에 합류했다. 본격적인 팀 적응에 돌입한 상황으로 오는 12일 예정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연습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 V-리그 경기를 많이 챙겨 봤고 좋은 배구를 한다고 생각했다"며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세터의 능력도 좋다. 공을 놓치는 일도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V-리그 영상을 챙겨보면서 한국 여자배구의 특성에 대해서도 완벽히 파악했다.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되면 공수 양면에서 동료들과 완벽한 호흡을 선보일 것을 자신했다.

장 위는 "한국 선수들이 스파이크하는 것이 중국 선수들과 폼이나 각도가 조금 다르다. 수비하는데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며 "동료들과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 경기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일주일 남짓이지만 주장인 박정아와는 중국어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절친한 사이가 됐다. 훈련에서는 세터인 박사랑과 이원정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데 집중하고 있다.

장 위는 "(박)정아 언니가 중국어로 장난을 많이 친다. 밥도 많이 먹으라고 하고 아침 인사도 해주고 매일 말을 걸어준다"며 "훈련장에서는 세터와 호흡 맞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직 모든 면에서 훈련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곱 명의 아시아쿼터 선수 중 최장신인 197㎝의 신장을 지닌 만큼 높이에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졌다. 목표는 신장을 활용한 적극적인 공격으로 상대 코트를 공략하는 것이다.

장 위는 "몸 상태가 아주 좋다. 한국에서 모든 부분이 엄청나게 흥분되는 상황"이라며 "득점을 많이 해 봄 배구 진출에 헌신하겠다. 나와 우리 팀에 보내주는 모든 응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글·사진=한규빈 기자